

[미술소식] 피오나 배너 바라캇 컨템포러리 개인전

송고시간 | 2021-06-17

강종훈 기자



피오나 배너 개인전 전경 /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작가는 이름 뒤에 '허영의 출판사(The Vanity Press)'라는 말을 붙여 '피오나 배너 aka 더 배니티 프레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그만큼 언어와 출판물은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전시는 인간의 갈등, 욕망, 소통의 실패, 인간과 자연의 파괴적인 관계를 다룬다. 전시 제목은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호흡법인 '프라나야마'와 자연 현상이자 전투기의 이름이기도 한 '태풍(Typhoon)'을 합쳐 만들었다.

전시장에 대형 전투기 한 대가 드러누운 듯 바닥에 늘어져 있다. 튜브처럼 송풍기로 바람을 넣고 뺄 수 있게 만든 전투기는 거대한 생명체가 호흡하듯 미세하게 들썩인다. 10여 분쯤 지나면 바퀴와 미사일 형태까지 완전히 드러내며 하늘로 치솟을 듯 전투기가 팽창한다. 영상 작품 '프라나야마 오르간' 속 거친 호흡과 음악 소리가 극적인 효과를 더한다. 8월 15일까지.